



이승엽 3호 홈런

주니치전 3점포 팀 승리에 쐬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3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승엽은 9일 나고야돔에서 벌어진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와 시즌 3차전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출장, 8-4로 앞선 9회 2사 1,2루에서 상대 좌완투수 다카하시 아키히로의 초구 몸쪽 직구(시속 142km)를 그대로 잡아 담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110m짜리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요코하마전에서 좌중월 솔로포를 터뜨린 이후 1주일만에 나온 시즌 세번째 홈런이었다.

요미우리는 이승엽의 쐬기 3점포를 앞세워 주니치에 11-4 대승을 거두고 7승 2패로 센트럴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6타수 3안타를 기록한 이승엽은 4월2일 요코하마전(4타수2안타) 이후 시즌 세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경기를 펼쳤다. 시즌 타율도 0.333에서 0.364(33타수 12안타)로 약간 올랐다. 타점은 10타점째다. /박진표기자 lucky@

아깝다! 장성호 연타석 홈런

루키 한기주 '호된 신고식'...패전 KIA, 개막전 이어 한화에 2연패



'황금팔' 한기주(KIA)가 프로 데뷔 후 첫 정규시즌 선발 등판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한기주는 9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2006 프로야구 2차전에서 3회까지 최고 구속 151km를 넘나드는 위력투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KIA는 1회 이종범의 2루타와 홍세완의 적시타를 묶어 선취점을 올리며 한기주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그러나 3회까지 잘 던지던 한기주는 4회 홈런 1방에 무너졌다. 4회 첫 타자를 안타로 내보낸 한기주는 이어나온 이범호에게 풀카운트에서 147km짜리 빠른 직구가 가운데로 몰려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를 허용했다.

추가 실점없이 4회를 마친 한기주는 5회 사사구 1개와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2루를 허용한데 이어 데이비스에게 안타를 허용, 추가 1실점하며 강판당했고 한화의 후속 적시타로 실점이 '5'로 늘었다.

KIA는 이날 장성호의 6, 8회 연타석 1점 홈런으로 2점차까지 따라붙었으나 마무리 구대성을 뚫지 못하고 3-5로 역전패했다.

'42억 FA 대박' 장성호는 올 시즌 첫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으나 팀의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롯데의 끈질긴 추격을 6-5로 뿌리쳤고,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박경원의 활



9일 대전야구장에서 열린 KIA와 한화의 경기. 1회말 1사에서 한화 데이비스의 유격수 땅볼때 KIA 2루수 손지환이 1루주자 고통진을 포스아웃시킨뒤 1루로 송구하고 있다. /N-POOL대전일보 = 신호철 기자

약에 힘입어 SK가 현대를 9-6으로 꺾었다. 잠실구장에서 열린 서울 라이벌 LG와 두산전에서는 선발전에서 무게가 실린 LG가 6-4로 두산을 이겼다.

한편 KIA는 지난 8일 한화와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김진우의 6, 2이닝 무실점 호투에도 불구하고 상위 타선의 침묵과 중간계투 전병두의 스리런포 허용으로 1-3, 역전패했다.

/대전=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9일 비가 쏟아진 가운데 열린 마스터스 골프 3라운드 1번홀에서 스웨덴의 칼 페터 스톤과 호주 스투어트 애블비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 3라운드는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 10일 열린 최종라운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게 됐다.

폭우로 중단... 순위다툼 변수



선두권 선수들 마지막날 27~32홀 강행군

캠벨 3R 현재 선두...최경주 본선진출 실패

마스터스 골프 3R

세계 골프 명인들의 각축전이 치열한 마스터스골프대회는 최종일 마라톤 라운드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는 폭우 때문에 지연된 끝에 선두권 선수들이 4~9개홀밖에 치르지 못한 채 순연했다.

이에 따라 선두권 선수들은 9일 오후부터 3라운드 잔여 경기에 나서 우승자가 결정되기까지 적게는 27홀, 많게는 32홀을 돌아야 하는 강행군을 남겨놓았다.

순위표 맨 뒷자리는 4개홀 동안 버디 2개를 잡아내고 보기 2개를 결들이며 6언더파를 고수한 채드 캠벨(미국)이 지켰다.

현재 시간 오후 7시에야 겨우 티오 프한 캠벨은 1번홀(파4)과 2번홀(파5)에서 버디를 챙겨 한때 4타차 선두로 나서기도 했으나 3번홀(파4)에서 3m 파파트를 놓친데 이어 4번홀(파3)에서는 티샷을 빗겨가며 1타를 잃어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타수를 줄이지 못한 캠벨의 마지막 라운드는 부담스럽다.

클라크의 상승세와 4번홀까지 2타를 줄인 로코 미디어이트(미국)의 노장 투혼도 부담스럽지만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레타프 구센(이상 남아공), 그리고 비제이 싱(피지) 등 이른바 '빅5'가 일제히 10위 이내에 포진한 것이 걸쭉하다.

지난해 1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치고도 역전 우승을 이끌어냈던 우즈는 9번홀까지 버디 2개를 뽑아내 캠벨에 3타차 공동4위로 올라섰다.

5번홀까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를 줄인 미켈슨도 캠벨에 3타차 공동4위로 따라 붙었고 우즈와 동반 라운드를 펼친 구센은 8번홀(파5) 버디로 캠벨에 4타차 공동7위를 달렸다.

마스터스 우승에 목마른 엘스는 5번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2라운드까지 스코어 2언더파를 유지하며 공동7위에 포진했다.

한편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대회 2라운드에서 4타를 잃어 중간합계 8오버파 152타로 컷오프(148타)를 만족시키지 못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4년만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타수를 줄이지 못한 캠벨의 마지막 라운드는 부담스럽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네트

徐감독, 개막패전 전병두 향해 "죄졌냐? 어깨 펴"

9일 오후 대전구장 3루측 기아 덕아웃. KIA서정환 감독은 8일 한화 데이비스에게 3점홈런을 허용한 좌완 전병두의 기를 살리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전병두의 기운을 북돋웠다.

이야기 하던 서 감독은 전병두가 덕아웃에 들어오자 "어깨 펴고 다녀라. 이런 일 한 두번 겪나. 마운드에 올라가면 눈에 힘주고 1루주자 한번 췌러보고 자신있게 던져. 한방 맞으면 어쩌나 뒤에 투수들 많이 있다"며 의기소침한 전병두의 기를 살리기 위해 '주문'을 건다.

그래도 전병두가 고개를 들지 못하자 다소 소상기된 서감독이 다시 한 번 기를 불어넣는다. "야 병두, 다음번에 때비스 만나면 몸에 맞춰도 좋으니깐 확 날려버려, 알았지. 그리고 오늘 경기 또 나가라. 잘 할 때 까지 계속 나가. 그리고 죄졌냐? 웃고 어깨 펴"

이제야 서 감독의 독려에 자신감을 얻은 듯 전병두가 고개를 들고 힘찬 목소리로 "네 감독님"하고 멋쩍게 웃었다.

9일 경기서 선발 한기주가 일찍 무너져 전병두가 등판한 기회가 없어서 서 감독의 '전병두 기살리기' 효과는 다음 경기로 넘어갔다.

/대전=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World's first air science combined heating system). It features a large '3' and lists benefits like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를 1/3로, 유해가스를 0%로' and '사용효율을 일반히터보다 2배 이상'. It also mentions '2005년 별첨하는 친환경기술 개발우수기업'.

Advertisement for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New concept for foundation repair and weak soil reinforcement). It includes diagrams of buildings and soil, and lists '주요특성' (Main characteristics) such as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and '구조물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한다'.